

안녕하십니까? 김원중입니다. 이번에 제8강 판세를 읽고
유리한 물을 만들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보다는 수시로 변하는 '세'가
무섭다라는 말을 손자병법에서 읽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볼 때 객관적 전력이 있지만 진짜
어떤 감독이 지도하냐에 따라서 판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형이라는 것이 있고 세가 있죠. 형은 바로
현재의 상황을 형이라고 하고요. 세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하는 판세를 이야기합니다. 손자는 형을 중시했을까요?
세를 중시했을까요? 손자는 형보다는 세를 중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은 현재 보이는 전력이고요. 세는 보이지 않는
전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 판세를

뒤집은 전쟁은 대단히 많고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약자는
늘 자신에게 유리한 세를 구축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승리를 결정하는 요소
그거는 세입니다. 분명 세, 그런데 형과 세 2가지 중에서

사람들은 그 당시 장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형이 즉, 나의 현재의 전력이 우세하면 그 우세한 전력이

계속 가서 상대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데 바로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형과 세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자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형과

세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즉, 그 완전무장한
군인이고 빈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정말 절대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골리앗의 형과 다윗의 형은 누가 더 앞설까요?
당연히 골리앗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형은 첫째

변화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전력이란 말이죠. 현재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형은 현재의 상황이고 절대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형으로써는 골리앗이 앞섰지만

세가 다윗에게 넘어왔기 때문이죠. 그 세가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다윗이 바로 골리앗의 기정에서의 그 정의

부분. 그다음에 허실에서 실한 부분을 공략하지 않고 다윗의
유리한 세를 끌어들어서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과
세를 마치 동전의 양면, 표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승형 즉, 이길 수 있는 형태, 이길 수 있는 형상에서 패세,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 판세로 뒤바뀌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국지에서 3대 대전에 들어가는

관도대전 아시죠? 즉, 북방에 있는 원소 즉, 3대 사세삼공을 지내고 북방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원소와 조조가 바로

관도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맞부딪힙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원소의 병력은 10만 명이었고 천하의

수많은 전략가들과 장수들이 다 원소 밑에 있었죠. 그런데 조조는 그 당시 병사들을 즉, 군대를 조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대부분 그 당시 청주병이라는 걸 가지고 조직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합지졸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병력도 2~3만 명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원소가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병력을 보고

전력을 보고 조조의 모사인 공융이 순욱이라는 조조의 또 다른 모사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소는 영토가 넓고 군대가 강성하며 전풍과 허유와 같이 지모가 뛰어난 선비도 있어서 그를 위해서 계책을 세웁니다.

심배와 봉기와 같은 자가 충성을 다하고 있고 바로 안량과 문추와 같이 삼군을 다스릴 수 있는 용장이 그의 군대를

동솔하고 있으니 절대 아마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순욱이 이 말을 듣고

조조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조가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조가 공융이 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순욱한테

경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순욱의 말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소가 비록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군법이 정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풍은 강인하나 윗사람을 거스르고 있고 허유는 탐욕스러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심배는 독단적이고 계획성이 없고

봉기는 과단성이 있지만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니 이 두 사람이 원소를 위해 기지에 남아서 뒷일을 관리할 때

허유의 가족들은 법을 위반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관용을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량과 문추는 필부의

용맹이 있으니 한번 싸움으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순욱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공께서, 공은 여기서 조조를 말하는 겁니다. 공께서 천하를 다룰 수 있는

자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께서 이 4가지 승리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 천자를 보위하고 정의를 가지고 반역자를

정벌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원소가 아무리 강대한들 그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즉, 말하자면 순욱의

분석은 바로 이런 거죠. 즉, 형의 문제로 봤을 때는 원소가 훨씬 더 강하지만 세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조의 세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욱의

그 말대로 조조는 과감하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해서 결국은 정면승부를 냈죠. 내서 누가 이겼습니까? 조조가

원소를 이겼고 그 원소는 화병으로 거기서 죽게 되죠.
그 정도로 원소가 절대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형제지간의 불화 그다음에 원소 밑에 있는 그런 모사라든지
장수들 그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승형이 패세로 바뀌었고,

원래는 조조로서는 패형에서 승세로 확실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현재 주어진 형세를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어떤 업체랑 거래를 합니다.
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형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불리한 형이고 그다음에 상대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유리한 세로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유리한 지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힘, 바로 세죠. 이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춘
직장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